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대변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총 4명으로 구성되어 각각 임베디드, 클라이언트, 서버, 디자인을 담당합니다.

대변인이란 ‘대신 당신의 변을 봐드리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자 대신 변을 봐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저희의 주요 타겟은 변비 등으로 배변 생활에 고민이 있는 사람, 자신의 배변 생활을 관리 받고 싶은 누구나 입니다.

그런 대변인은 사용자의 배변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이에 따른 정보를 다시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자신의 대변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에 사용자는 많은 귀찮음을 느끼며, 결국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배변 관리를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대변인은 사용자의 아무런 입력 없이 배변데이터를 ‘알아서’ 수집하며 또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상이 있을시에 사용자에게 알려 배변 생활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변인의 auto catch 시스템은 이러한 형태로 동작합니다.

이에 따른 질문은 질문 시간에 받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의 기능들을 UI와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제공 기능은 총 2가지로 캘린더를 통하여 각각의 날에 대한 사용자의 배변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두 번째는 사용자의 이슈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 자신의 배변 상태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제공하며, 최근의 이슈 순으로 배변상태를 카드뷰 형태로 제공하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smart lock입니다. Smart lock은 사용자의 배변 시간이 건강한 배변 시간(5분)을 초과하면 휴대폰 화면을 잠궈 건강한 배변 시간을 관리하여 줍니다.

추가적으로 정밀 기록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정밀 기록은 병원에서 진찰을 볼 때 사용자의 정확한 배변 색, 시간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배변 사진을 저장하여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커버는 이러한 형태로 제작되며

이에 따른 필요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변인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를 알아서 인식하고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렇기에 세계 어디에서나 대변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배변 생활을 개선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변인은 더욱 똑똑해질 것입니다. 사용자의 배변 데이터가 축척 되면 이를 통해 배변 패턴을 생성하여 더욱 정확하게 대변을 분석하고, 사용자 대신 진료를 보러 갈 것입니다.

개발을 계획하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1. 첫 번째는 auto catch의 구현입니다. 우라는 사용자의 휴대폰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NFC나 Bluetooth 사용은 불가능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방법은 설계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AP 탐색이라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이를 통해 auto catch를 설계하였습니다.
2. 두 번째는 ‘대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입니다.

대변인이 사용자의 배변 건강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정보는 시간, 빈도, 대변 색을 사용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는 대변과 소변의 구분이 필요했고, 변의 색 또한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openCV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소변의 구분과 색의 수집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황실에서는 임금의 변의 상태를 통해 질병의 유무, 건강의 정도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희는 사용자를 임금처럼 생각하고 대변인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든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